**<아모스>**

**하나님과의 만남을 예비하라**
북 이스라엘의 겉모습은 번성하고 안정돼 보였지만, 속은 뿌리 깊은 죄악에서 나온
우상숭배, 탐욕, 불의, 학대, 오만 등으로 곪아 있었다. 하나님은 남 유다 드고아
출신의 농부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북 이스라엘의 진상을 알리셨다.
또 예언, 설교, 환상, 약속 등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셨다.

**| 아모스서 한눈에 보기 |**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본문 | 1:1~2:16 | 3:1~6:14 | 7:1~9:10 | 9:11~15 |
| 구분 | 여덟가지 예언 | 세 편의 설교 | 다섯가지 환상 | 다섯가지 약속 |
| 이방에 대한심판 | 이스라엘의 죄 |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| 이스라엘의 회복 |
| 주제 | 심판의 선포 | 심판의 원인 | 심판의 실제 | 회복의 약속 |
| 심판 | 소망 |
| 대상  | 주변나라들 | 북 이스라엘 |
| 연대 | BC 760~753경 |

하나님은 아모스 1~2장에서 주변 나라들과 북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다.
그리고 3~6장에서 이스라엘의 죄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서 그들에게 내릴 심판을
말씀하셨다.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간절히 원하셨다. 또 7~9장에서
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 주셨는데, 이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
보여 준다.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만 말씀하시지 않았고 마지막 장에서 회복에 대한
소망의 메시지도 함께 주셨다.

**짐을 진 선지자, 아모스**

아모스라는 이름은 '짐을 진 자'라는 뜻이다. 그의 고향은 군사적 요충지로
예루살렘에서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드고아라는 변두리 도시였다. 이곳에서 아모스는
목자로서 양 떼와 가축을 치는 일을 했고(1:1), 부업으로 뽕나무를 배양하는 일을
했다(7:14). 아모스는 자신에 대해 '선지자도, 선지자의 아들도'(7:14) 아니라고
말했는데, 이것은 당시에 예언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던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니라는
표현이다. 아모스는 평범하게 생업에 종사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
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부름 받은 사람이었다.

**속이 곪은 여름 실과, 이스라엘**

아모스서의 배경이 되는 BC 760~753년은 북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다.
여로보암 2세가 전례 없이 안정된 정권을 유지하며 40년 가까이 왕좌에 머물고
있었다. 북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강성해 그 국력이 주변 나라들과
비등했다. 솔로몬 이후 분열된 다윗 왕조 가운데 열 개의 지파로 구성된 북 이스라엘은
자기만족, 부도덕, 우상숭배 등으로 사회적, 도덕적 타락상을 보였다. 그들은 평화와
번영으로 교만해져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했다. 이런 북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
하나님은 남 유다 출신인 선지자 아모스를 급파하셨다.

**여덟 가지 심판 예언(1~2장)**

아모스는 자신의 고향인 남 유다를 떠나 북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
메시지를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다. 그가 예언한 여덟 나라는 각기 죄악으로 가득했다.
아모스는 주변 나라들에서 시작해 북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점차 강도 높은 심판
메시지를 선포했다.

**주변 나라들과 북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**

아모스는 1~2장에서 주변 나라들의 죄에 대해 지적하면서 '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'
라는 표현을 여섯 번 반복하고 있다(1:3, 6, 9, 11, 13; 2:1). 이것은 숫자로 서너 가지
죄가 아니라 주변의 적대국들이 반복해서 짓는 각각의 많은 죄를 묘사한 시적
표현이다. 그런데 주변 나라들의 죄는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에서도 동일하게
발견되었다(2:4, 6). 주변 나라들과 남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
선포될 때 박수를 치며 방심하던 북 이스라엘이 나중에 허를 찔리게 된다(2:6).

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1:1~2 | 1:3~5 | 1:6~8 | 1:9~10 | 1:11~12 | 1:13~15 | 1:1~2  | 2:4~5 | 2:6~16 |
| 머리말 | 다메섹 | 블레셋 | 두로 | 에돔 | 암몬 | 모압 | 남유다 | 북이스라엘 |
| 주변 나라들  | 이스라엘 |

**세 편의 심판 메시지(3~6장)**

아모스는 여덟 가지 심판 예언에 이어 세 편의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에 다가올
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했다. 각 심판의 메시지는 '이 말씀을 들으라'(3:1; 4:1; 5:1)로
시작하며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.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3:1~15 | 4:1~13 | 5:1~6:14 |
| 현재  | 과거 | 미래 |
| 이스라엘의 멸망 | 이스라엘의 부패  | 이스라엘의 운명  |
| 백성의 죄(3:1~8)하나님의 심판(3:9~15) | 여자들의 타락(4:1~3)남자들의 타락(4:1~11)하나님의 심판(4:12~13) |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애가(5:1~17)배교에 대한 경고(5:18~27)백성의 안일함(6:1~7)하나님의 심판(6:8~14) |
| 심판의 일반적인 선포 | 백성의 잘못과 하나님의 징계 | 회개에 대한 강력한 촉구 |

**하나님의 저주와 이스라엘의 반응**

여기에 열거된 재앙들은 레위기 26:14~39, 신명기 28:15~68에 나온 저주의 메시지에
모두 들어 있고,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드린 기도(왕상 8:31~51)에도 들어 있다.

|  |  |
| --- | --- |
|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| 이스라엘의 반응  |
| 4:6 | 기근 | 신 28:17~18 | "...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..."(4:6,8~11) |
| 4:7~8 | 가뭄 | 신 28:23~24 |
| 4:9 | 풍재,깜부기,팟종이 재앙 | 신 28:38~39,42 |
| 4:10 | 염병과 칼 | 신 28:25~27, 60~61 |
| 4:11 | 성읍을 무너뜨림 | 신 28:62 |

**다섯 가지 심판의 환상(7:1~9:10)**

아모스는 세 편의 설교에 이어 이스라엘에 대한 다섯 가지 심판 환상을 전했다.
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다섯 가지 약속으로 끝을 맺는다.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7:1~3 | 7:4~6 | 7:7~9 | 8:1~14 | 9:1~10 |
| 황충 | 타는 불꽃 | 다림줄 | 여름 실과 | 부서지는 문설주 |
| 이스라엘에 황충을 보내시려는 하나님  | 불로 심판하시려는 하나님 | 쌓은 담이 바른지 확인하시는 하나님 | 썩어 가는 과일 광주리, 심판받을 지경에 이른 이스라엘 | 제단 곁에서 서 계시는하나님 |
| 아모스의 중보기도로 심판이 일어나지 않음 | 환상에 대해 유일하게 설명함 | 심판의 임박성을 뜻함 |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뜻함 |

**아마샤의 반대(7:10~17)**

아마샤 사건은 세 번째 다림줄 환상의 진실성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. 아마샤의
행동은 북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해져 있고 하나님의 다림줄로부터 얼마나 크게 벗어나
있었는지를 잘 보여 준다. 아마샤는 아모스의 예언 자체를 부정하며 그에게 북
이스라엘을 떠나 남 유다로 돌아가라고 위협했다. 결국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아마샤의
적극적인 훼방은 자신의 가정을 풍비박산 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.
이것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에 대한 본보기가 된다.

**다섯 가지 약속(9:11~15)**

아모스는 여덟 번의 경고, 세 편의 설교, 다섯 가지 환상 등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
강력하게 전했다. 하지만 그는 저주가 아닌 위로의 예언으로 마무리했다. 하나님은
다윗의 계보를 다시 세우시고 그 땅을 새롭게 하시며 그분의 백성을 회복하실
것이라고 약속하셨다.

**신약에서의 아모스서 인용**
●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아모스 5:25~27을 인용 :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
   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저들을 버려 그 범죄 행위대로 두셨다고 했다(행 7:42).
● 야고보가 예루살렘 회의 중에 아모스 9:11을 인용 : 그는 "이후에 내가 돌아와서
    다윗의 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"
    (행 15:16)라고 했다. 다윗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며, 다윗 왕국은 장차 실현될
   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였다. 여기서 야고보는 다윗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
    멸망했으나 메시아 왕국에서 그의 왕위가 계속됨을 말했다.